

“흥겨운 우리가락 듣고 법문 배우고...”

불광사, 청년법회 활성화 위한 국악문화법회 개최

민족의 전통음악과 부처님의 법문을 한 곳에서 들을 수 있는 이색법회가 열렸다. 서울 불광사회주 지홍는 7월 26일 불광사 보광당에서 국악문화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회는 불광사가 활발히 벌이는 공연·출판·아동교육 등 대중포교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민족전통음악인 국악에 대한 청년 불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법회 참석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도법사 본공 스님을 비롯한 불광사청년회 50여명이 참여한 이번 법회는 국립국악관현악단 이상준 단원의 국악기 소개와 김병성 단원의 관악기 연주, 국악공연단체 A-HOPE의 피리3중주 등으로 진행됐다.



불광사 청년법회에서 공연 중인 이승호·이상준·오노을·임정호씨(왼쪽부터).

특히 김병성 단원이 대금으로 연주한 ‘영산회상’과 바라춤곡 중 ‘천수바라’를 소재로 한 A-HOPE 오노을 단원의 태평소 연주는 법회에 참여한 불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어 피리3중주는 모노북, 개량단소,

피리, 태평소 합주로 현대각각에 맞는 신나는 음악으로 연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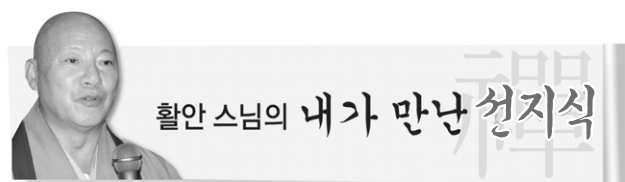
시연곡 중 영산회상은 ‘영산회상 불보살(靈山會相佛菩薩)’ 가사를 관현악 반주로 노래한 불교음악이다. 본래 불교 성악곡이던 영산회상이 중종(1506~1544) 때 개작돼 점차 기악곡으로 변화한 것이다. ‘천수바라’ 태평소 연주는 원래 스님들이 연주했으나 현재는 국악으로 재가자들이 연주하고 있다.

이번 법회는 2003년 대만에서 열렸던 불광산사·불광사 자매결연 축하공연이 계기가 됐다. 이상준 단원은 “본공 스님이 아들 이름까지 작명해 준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청년회에 문화공양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밝히며 현대국악의 발전에 대해

“예전에는 전통악기가 개량이 안돼 한중일 합동공연 등에서 악보의 음역을 소화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지금은 북한과 교류를 통한 민족악기의 현대화가 진행되고 비보이들과의 합연으로 신세대에 맞는 민족음악도 개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근현대 국악인이 천시받던 풍조는 일제시대 민족문화 말살정책 때문으로 국악인들은 국악을 하려면 기생집에서만 가능했다”며 “민족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 문화인 국악에 불자들이 애정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불광사는 월간 <불광> <공감 플러스> 등 출판과 불광유치원, 대학원 등을 통해 불교 교육에 앞장서고 있으며 제1회 불광장학회를 조직해 문화포교와 불교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노덕현 기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4>효봉 대선사

“봉투 속에는 편지만 들어 있는 줄 알았지 돈이 들어 있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편지가 효봉 스님과 취봉 스님 두 분 앞으로 되어 있으니, 확인하지 않고는 나가지 못한다.”

하며, 경찰관은 수화기를 들었다. 화계파출소에 있는 순경 보고 상계사에 올라가 확인하고 내려 오라 했는데, 자그만치 4시간이나 걸려 밤 9시에야 확인이 되었다.

“지리산 토벌작전으로 검문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하동포교당에 가서 자고 가라.”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들어갔으나 어느 큰 절에서 왔다는 수

내려간다. 노스님은 스스로 없이 물속에 들어가 한참 앉았다가 등 어리를 밀라 하였다.

등어리를 밀면서 밖으로 드러난 궁둥이를 보니 주먹만큰씩 한 흡이 파여 있었다.

“어찌 이렇게 되었습니까?” “미련하게 공부하다 살점이 떨어졌지.”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석달 동안 아랫목에 앉아 일어나지 않고 정진하다 보니 궁둥이 살이 썩어 문드러졌다고 한다. 저녁 예불은 탑전에서 죽비로 3배만 하고 한참 앉아 좌선하다가 나오면서 물으셨다.

“너 저 탑 앞에 있는 육조대사의 돌베개를 들 수 있겠느냐?”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가서 들어올리니, 깔깔

“육조대사의 돌베개를 들 수 있겠느냐? 그만 두어라. 참으로 미련한 놈이구나”

좌 한 분이 좌복을 깔고 누워있다 새벽녘에 일어나 말했다. “이 절에는 예불도 하지 않는구나. 이런 곳에 부처님이 계시면 무얼 하나.”

하고는 법당 안에 모셔진 백옥 관세음보살상을 바랑에 넣고 나갔다. 그대로 앉아 있다가는 도둑의 눈을 흘 것 같아도 뛰어나가 무조건 지리산을 향해 걸었다. 얼마쯤 걸다보니 첫 버스가 왔다.

화계에서 내렸으나 짙까지는 6km나 되었다. 세 네 번 검문을 당하면서 겨우 생계사 탑전에 이르니 얼굴에서 밝은 빛이 환히 나는 한 노스님이 안경을 끼고 양발을 기고 있었다.

“효봉 큰스님 뵈러 왔습니다.” “음, 조금 전 하동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너였구나.”

하고 자리를 권했다. 편지를 내어 드리니 행자더러 우선 밥을 주라 하였다. 행자는 부엌에 들어가 김치와 간장 두 가지에 불기밥 한 덩어리를 있는 그대로 주었다. 아침 겸 점심만 먹고 나니 목욕을 가신다며 같이 가자 하였다. 뒷 개울에 올라가니 맑은 냇물이 그림처럼 흘러

웃으면서 “그만 두어라. 참으로 미련한 놈이구나.”

하였다. “육조대사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물으신 것인데,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돌베개를 들었으니 말이다.

이튿날 스님은 시자와 함께 단 둘이서 발우공양을 하시고, 나는 작은 상에 따로 밥을 차려주었다. “취봉 스님은 그제 떠났으니 다시 이 편지는 취봉 스님께 갔다 주고, 너는 절에 가서 추강 스님께 시키는 대로 하라.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알고 보니 이번 심부름은 첫째로 송광사 복구를 위해 효봉 스님을 송광사로 모시려 했던 것이고, 둘째로 내가 종노릇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속마음을 헤아려 보아 달라 부탁한 것이었다. 후에 서울에 와서야 당시 효봉 스님이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스님인 것을 알았다.

“해맑은 안경 너머로/ 양발을 기고 있는 노스님이시여/ 천 땅만 따위 모두 한 길/ 옛 사람들의 발자취인걸/ 행자는 미련하여/ 돌베개를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에 ‘꿈과 희망’을

백담사 만해마을서 ‘청소년 의지나눔캠프’ 개최

결혼빈곤아동, 청소년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캠프가 열린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광은)은 8월 15~17일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의지나눔캠프를 개최한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봉사자들을 만나 미래의 직업에 구체적 비전을 가지게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에서는 각 진로별 전문가의 초청강의와 성격유형검사를 통한 청소년 진로탐색 및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진로상담프로그램, 다도, 사물치기, 뗏목타기, 고기잡이 등 전통놀이마당이 준비되어 사찰예절과 민족전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참가는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3학년 8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woeks@chol.com)을 통한 신청서 접수 가능하다. 신청서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mahayana.or.kr)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관계자는 “결혼빈곤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꿈과 희망을 크게 잡고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넓고 다양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여러 직업군 봉사자와 불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02)738-1920

노덕현 기자



동국대 의료봉사단원이 캄보디아 어린이를 치료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전한 자비의 인술”

동국대 경주병원 의료봉사

동국대 경주병원(원장 이규춘)은 7월 21~27일 캄보디아에서 해외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동국 교수(의료봉사단장)와 무국 스님(지도법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은 씨엠티주 수삼마을과 앙코르뚝 쪼파프라우면 지역민 1500여명에게 인술을 펼쳤다. 동국대 경주병원은 2006년 1월 지진해일(쓰나미) 피해지역인 스리랑카에 해외의료봉사단을 파견한 이래 해마다 자비정신을 실천 중이다. 조동성 기자

만물사 백중 학술세미나

우란분절(백중)을 맞아 영천 만물사(주지 학성)가 천후대제와 학술세미나를 봉행한다. 8월 9일 오후 1시 ‘인간의 삶과 죽음의 번뇌’를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정병호 원장한

국불교연구원원 ‘생사일여의 미학’을, 우제천 교수(동국대)가 ‘문화와 생존’을, 김상영 교수(중앙승가대)가 ‘우란분절의 의미와 역사’를 발표한 다. 오후 5시부터는 ‘제1회 조상영가 천후대제’를 봉행한다. (053)217-0101 조동성 기자

“53 선지식과 함께 구법여행을”

리더스클럽 5기 개강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 불교이카데미는 8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총 16회) 만해NGO교육센터 대교육관에서 ‘53도반과 함께 하는 구법여행-제5기 리더스클럽’을 개강한다.

8월 21일 입재식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8월 28일-〈대

남처경>을 중심으로 본 불교수행원리(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 ▲9월 2일-초기불교에 대한 실증적 이해(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 ▲9월 7일-수화여행-사찰생태기행(사찰생태연구소 김재일 소장) ▲9월 11일-근본교리의 체계와 한국불교수행 모델(동방불교대 김재영 법사) ▲9월 18일-세계불교의 흐름과 한국불교의 도전(서강대 박광서 교수)

▲9월 25일, 외전에서 본 불교비판(건국대 성태웅 교수) ▲10월 2일-탐벌 과제작업과 특강 ‘3박자 불교 학습법’(NGO미래경영연구소 이영철 소장) ▲10월 23일-화엄불교를 통해 본 대승불교운동(연세대 신구탁 교수) 등 모두 14강으로 진행된다. 불교이카데미는 ‘비전, 리더십, 응용력을 갖춘 불교인재와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는 종교계 최초의 교육, 리서치, 컨설팅 종합기관이다. 접수 마감은 8월 12일. (02)2278-1087 김성우 기자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 영을 직접 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인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분
-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분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침술,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 최면기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 특별보시금 60만원
- ▷ 실전교육으로 책임 전수함
- ▷ 교육시간(매일) 오후 2시 - 3시 30분 / 오후 6시30분 - 8시
- ▷ 특별교육 : 시간,요일 조절가능
- ▷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제 1기 단전호흡·명상·최면 수강생 모집

- ▷개강 : 2008년 9월 3일(수) 오전 10시 지장사 법당
- ▷매주(수) 오전 10시 - 11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9시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합장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JANGSA24.ORG